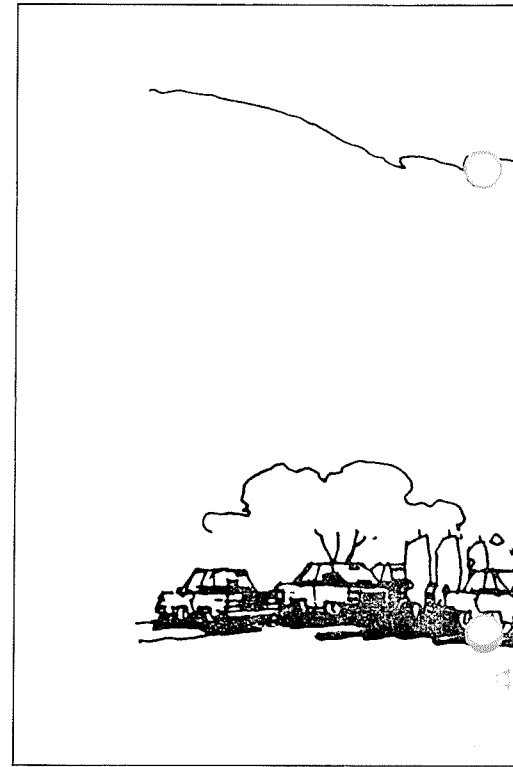


蔡禮 儀式場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金永德

(주) 한건종합건축사사무소

Report / A Study on the planning and Design of
Funeral Ceremony Hall
by Kim, Young-Duk



머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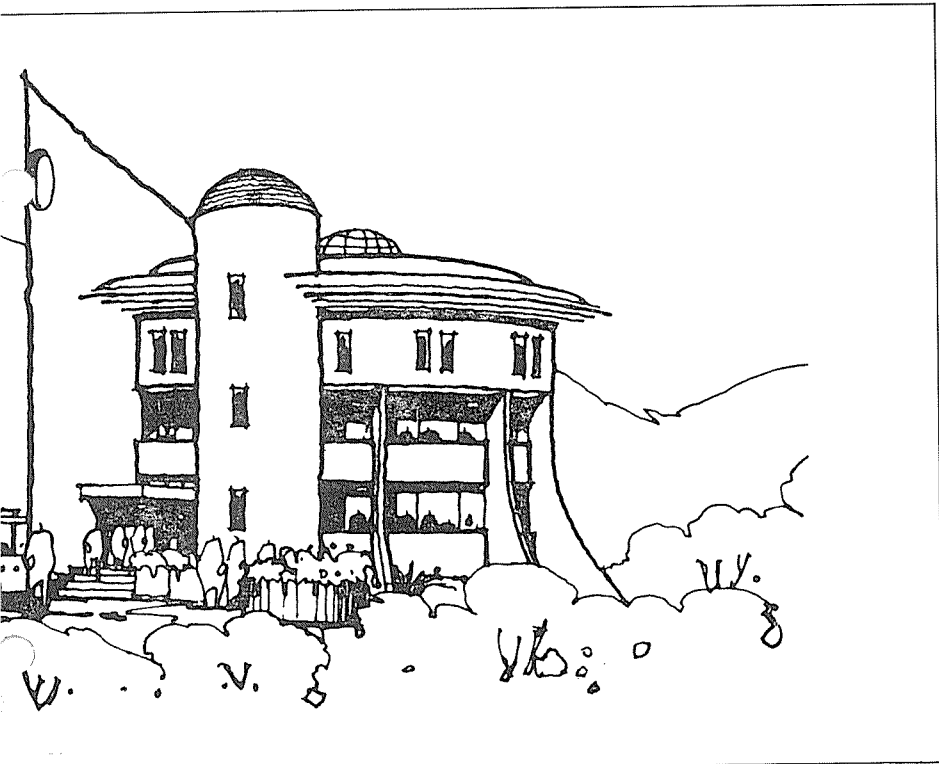
인간의 삶에 있어서 결혼과 죽음은 예로부터 人之大事로 중히 여겨 신분의 貴賤을 막론하고, 最高의 禮를 다하여 그 儀式을 치루었다. 그 의식의 절차는 지역적으로 風俗化되었고, 종교적으로 승화되었다. 의식의 장소는 주로 住居空間이나 마을 共同體에서 행하여졌으며, 종교적인 경우에는 聖堂, 教會, 寺刹 등에서 거행되었다. 근래에 와서 사회구조와 주거형태의 변화로 家禮는 주거공간에서 의식을 치루기가 어렵게 되어 전문성을 띤 장소가 필요하게 되었고, 결혼식은 결혼예식장의 이용이 생활화되기에 이르렀으나, 葬禮式의 경우는 보수적 성향이 강하여 家禮로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도시 인구 집중과 가족제도의 변화, 전통적인 의식의 서구화로 인해 주거공간 내에서의 장례의식 수행에 따르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예고없이 찾아오는 부모나 친지의 臨終을 맞이한 가족들은 심리적인 충격 속에서 어려운 장례의식을 좁은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진행해야하는 이중의 고통을 치루어 왔고, 장례기간동안 腐敗되는 死體의 보존에 따른

위생상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그러므로 死體冷凍保存, 葬禮儀式節次, 행정처리, 묘지와 의 連繼, 問喪客에 대한 편의 제공 등을 모두 충족시키면서 전통적인 예를 보전할 수 있는 전문화된 의식장의 운영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장례의식의 역사적 종교적 개념을 고찰하고, 장례의식장의 필요도를 설문지와 인구통계학적인 분석과 정부의 행정적 방침 등으로 조사한다. 장례의 절차를 가정의례준칙, 기독교, 불교, 유교식 별로 비교 검토하고, 건축계획의 기본자료를 설문지로 조사하여 장례의식장 건립시 건축적으로 활용될 기능과 동선을 정리하고, 각실의 규모를 산정한다. 현재의 도시계획 및 건축법규로 장례의식장 건립의 가능여부를 해석한다. [그림1 참조]

I. 喪禮儀式의 역사적 종교적 개념

1. 歷史的 概念

우리 민족에게는 외래사상과 문화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古神道라는 고유의 신앙이 있어서 天, 鬼神, 祖先을 극진히 섬겼으며, 死後에도 現世와 같은 삶을 계속한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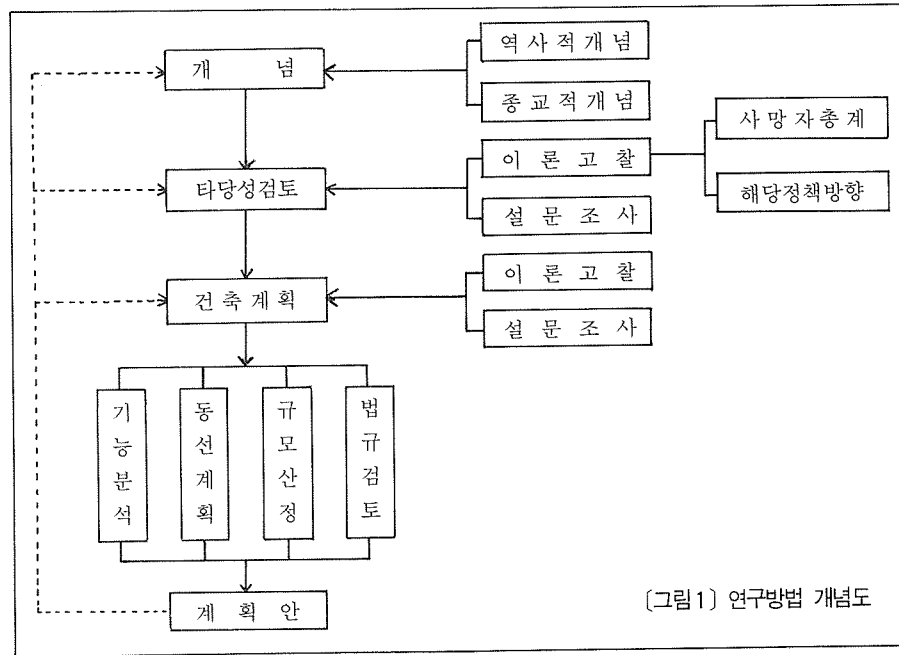
繼世思想으로 인해 死者에 대한 禮遇를 신중히 하여 厚葬을 한 풍습이 있었다. 삼국시대에도 조상에 대한 숭배사상이 강하여 고구려에서는 종묘에 제사지내고¹⁾, 新羅에서도 朴赫居世의 始祖廟²⁾가 있었고, 백제도 그 始祖仇台廟를 國城에 세워 지사를 지냈다.³⁾ 이 조상 숭배사상은 생명의 영속성에 그 바탕을 두어 死後에도 死者와

生者는 일체를 계속 이룬다고 믿었다. 통일신라에 이어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國敎이므로 輪廻還生思想이 큰 영향을 미침에 따라 厚葬의 풍속은 약해지고 火葬制가 도입되었고, 사후의 冥福을 寺刹에서 기원하는 풍습이 일반화 되었다. 麗末에 性理學과 함께 「朱子家禮」가 전래되었고 조선시대에는 유교를 국교로 삼으면서 우리 고유사상과 摩擦없이 흡수되어 가례를 체계화한 「四禮便覽」이

冠婚喪祭의 규범서가 되어 널리 보급되었고, 사대부는 물론 서민에 이르기까지 시행하였다. 이는 유교의 근본사상인 仁孝思想과 誠敬의 정신을 준수하여 禮의 隆盛과 공동체의 화목과 일치에 큰 역할을 했다 하겠으나 유교의 상례는 비인간적이고, 비생산적인 煩文縟禮라고 비난받을 만큼 그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18세기말에 천주교가 전래되면서 우상숭배라 하여 喪禮問題로 논쟁과 반목으로 辛亥教難이 일어나기도 했다. 오늘날에 이르러 사회구조의 변천으로 이 예법이 적용되기가 곤란해지자 정부는 「家庭儀禮遵則」에 관한 법률을 1969년 공포하게 되었다. 「가정의례준칙」은 「四禮便覽」을 기본으로 하여 현대에 맞게 정리한 것으로 이 법의 목적은 「가정의례의 참뜻과 시대의 흐름에 알맞고 간소하고도 건전한 의례절차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합리화를 기하고, 美風良俗의 醇化를 도모함에 있다」 하였다. 또한 「모든 종교의 의례는 이법의 정신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하여 종교의식을 포용하였다. 상례에 있어서도 이법의 제정으로 의식절차는 많이 간소화되었으나 아직도 적지않은 부분에서는 전통의식, 즉 유교의식을 준용하여 시행되고 있는 과도기적인 실정에 있다.

2. 宗教的 概念

● 儒 教
유교의 전통적 사상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魂氣는 하늘로 올라가고, 形魄은 땅으로 돌아가므로 정성을 다하여 제사를 드리면 魂魄은 합한다 하였다.⁴⁾ 성리학에서는 인간의 생은 理氣의 妙合으로 보며, 物을 이루고 있는것이 氣요, 그 所以然은 理라 한다. 理에는 변화가 없어서 「태어날 때도, 죽을 때도, 태어나기 전에도, 죽은 후에도 같은 理가 있을 뿐이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死者의 존재유무나 형체유무보다는 인간으로서 또 자손으로서 선조에게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정성에 그 중요성을 두고



(그림 1) 연구방법 개념도

있다. 仁을 중심사상으로 하여, 仁은 親愛의 情에서 연유하고⁶⁾, 仁은 孝를 통해 실현되며, 孝는 仁을 행하는 본이라 하였다.

孝의 근본정신은 귀중한 생명을 전수해준 부모에게 보은하는 친애의 정이다. 그래서 전수받은 신체를 보존하여 자손을 번성케 하여 부모의 생명을 확충하는 것이 효의 그 첫째고, 또한 부모를 하늘과 같이 誠敬하고 奉養함이 그 둘째고, 부모의 뜻을 받들어 立身揚名하는 것이 그 세째라 하였다.

이 孝道는 부모가 돌아가시므로 끝나지 않고 장례와 제사를 통하여 생사와 같이 계속하며, 또 자손을 통하여 영속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孝經」에, 효자가 부모를 여의게 되면 哭을 하게 되는데 그 슬픔이 너무커서 울음소리조차 나오지 않고, 목이 메어서 흐느끼며, 용모나 옷차림에 있어서도 단정하지 못하고, 또 말도 하지않게 되며, 좋은 옷을 입어도 몸이 평안치 않고, 음악을 들어도 즐거움을 모르며, 입은 맛을 잃으니, 哀傷의 情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3일이 지나면 음식을 먹기 시작하니, 슬픔으로 인해 부모의 유체인 신체를 손상할까 염려해서이며, 또 아무리 길어도 3년상을 넘지 않으니 中節을 지키기 위함이다.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 정성껏 棺을 만들고 衣衾으로써 小大殮을 하여 입관안치한 후, 곡을 올리면서 애통해 하며, 슬피 葬送한다. 또한 장지를 잘 마련하여 안장하고는 그를 위해 제사를 지내는데 三年喪이 끝난후에는 祠堂에 遷主하고서 春秋로 제사지내고 또 돌아가신날 기제를 지내며, 기회있을 때마다 돌아가신 부모를 추모한다. 살아계실때는 애경으로 섬기고, 돌아가서는 애통으로써 추모하여 「事死如事生」하고, 「事之如事存」하니,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요 養生送死의 義를 갖추게 되며, 子女로서 孝를 마치게 되는 것이다.⁷⁾

● 佛 教

불교에서는 죽음이란 정신과 육체가 분리된 靜的인 상태 즉, 열반이라 한다. 인간은 輪廻의 굴레 속에서

〈표 2〉 조사대상자 110명의 일반적 성격

종 류	구 분		빈도	N	%	
	남	자				
성 별	남	자	75	68.2		
	여	자	35	31.8		
	계		110	100		
연 령	20	대	8	7.3		
	30	대	56	50.9		
	40	대	34	30.9		
	50	대	10	9.1		
	60	대	2	1.8		
	계		110	100		
종 교	기	독	교	28	25.5	
	천	주	교	12	10.9	
	불	교		16	14.5	
	무	종	교	54	49.1	
	계		110	100		
교 육 수 준	중	졸	이	하	2	1.8
	고	졸	이	상	19	17.3
	대	졸	이	상	89	80.9
	계		110	100		
생 활 수 준 (월 수입)	35만원 미만		8	8.5		
	35만원 이상-60만원 미만		33	35.1		
	60만원 이상		53	56.4		
	무응답자 16명은 통계에서 제외					
계		94	100			

출생하고 성장하고 죽는데, 인간의 誕生은 부모의 인연으로 인해 육체를 받아 출생하여 전생의 업에 따라 삶을 영위하다가 죽음에 이르면 육체와 정신이 분리되어 육체는 地, 水, 火, 風으로 흩어지는데

- 地라 함은 인간의 살과 뼈, 골수, 머리카락 등이 다시 흙으로 돌아감을 뜻하며,
 - 水는 인간의 수액·피·침·대소변 등은 수분으로 흡수됨을 뜻하며,
 - 火는 육체가 정적인 상태에 이르게 되면 체온을 방출함을 뜻하며,
 - 風은 육체가 정적인 상태에 이르러 활동을 정지함을 뜻한다.
- 따라서 육체는 정신을 지지하는 皮膜에 불과하며, 無에서 다시 無로 돌아가는 것이라 하였다. 정신은 「육도 윤회」하게 되는데 이는 중생이 前生에 행한 業에 따라 「善報」(천상·인간·수라)와 「惡報」(아귀·축생·지옥)로 還生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장례란 이생에서 행한 더러운것을 태워없애고 깨끗이 하는 뜻으로 불교에서는 육체를 火葬하게 되고 죽음이란 탄생과 탄생으로

이어지는 생명의 필연적인 단계라고 생각하며, 생명 과정의 한 瞬間이라고 생각한다.

● 基督教

기독교에 있어서 죽음이란 흙으로 지은 육체와 인간의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의미한다.⁸⁾ 따라서 영결의 개념이 아닌 궁극적인 부활과 영원한 삶에 이르는 하나의 과정으로 죽음을 이해한다.

교회는 장례를 통하여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경축하며,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세례로 한몸이된 신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 천국에 들게하며, 육신으로는 복된 희망을 품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육신의 부활을 기다리게 도와주며 위로하는 의식이다.

II. 葬禮儀式場 설치의 必要度조사

장례의식장 설치의 필요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장례의식장의 정의를 「사람이 임종하여 상을

당했을 때 屍身の 운반 및 殮葬, 사망신고등 행정적인 처리 대행, 문상객의 접대, 묘지 및 화장장과의 연계 斡旋등 편의를 제공하고 장례의식의 절차를 도와주고, 그 장소를 제공하는 식장」으로 설정하였다.

1. 設問調査에 의한 分析

● 설문조사 개요

본 설문조사는 장례의식장의 일반적 필요도를 조사하고, 그 필요도가 세부적으로 兄弟順位, (媿) 父母喪 經驗有無, 주거형태, 종교, 연령 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장례의식장의 건축적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葬日, 문상객수, 장례를 치를 때 불편했던 점, 원하는 외관형태, 건립위치, 의식장의 종교별 분리여부, 빈소의 구획 등을 조사하고, 장례의식장의 건립, 특히 그 定着化를 위한 의견을 기술하도록 요청하였다.

● 자료수집 및 처리

본 설문조사는 1986년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기혼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설문지는 대학교의 교수 및 직원 등 교육관계자에게 50부, 무역회사 임·직원에게 30부, 건설회사 임·직원에게 40부, 방송관계자에게 30부, 건축설계 사무소 직원 및 그 친지에게 40부, 아파트 주민에게 10부로, 200부를 배포하였다. 200부 중에서 175부(87.5%)를 회수하여, 이중 응답내용이 불충분한 65부를 제하고, 110 부만을 자료로 이용하였다.

● 장례 의식장의 필요도 분석

장례 의식장의 필요도는 응답자 110명중 「필요하다」가 57명(51.8%), 「앞으로 필요하다」가 37명(33.6%), 「필요없다」가 16명(14.5%)으로 응답자의 85.4%(94명)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 참조) 그리고 「필요없다」고 한 응답자 16 명중 장례 의식장이 필요하지 않는

이유를 8명(50%)이 「전통적 사회 관습때문에」이라고 응답했고, 나머지 8명(50%)이 「왠지 불효하는 것 같아서」라고 응답했다. (표4 참조) 장례 의식장의 필요도를 조사대상자의 (시)부모상 경험유무, 집안내에서의 형제순위, 주거형태, 종교별, 연령별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 (媿)父母喪 경험유무에 따른 필요도 분석

남자인 경우에는 부모상이고, 여자인 경우에는 시부모상의 경험유무에 따른 필요도를 분석해 보면, 경험자 62명중 「필요하다」와 「앞으로 필요하다」의 계가 55명(88.7%)이고 무경험자 48명중에는 39명(81.3%)이다. (표5 참조)

따라서 (시)부모상의 경험유무에는 큰 영향없이 높은 필요도가 나타나고 있으며, 무경험자라도 친지등의 장례를 통하여 그 필요도를 인식하고 있는 것은 판단된다.

● 兄弟順位에 따른 필요도 분석

집안내에서 형제순위에 따른 필요도를 분석해 보면 「필요하다」는 장남 및 맏며느리가 62명중 31명(50%), 차남 및 둘째며느리 이하가 48명중 26명(54.2%)으로 비슷하나 「앞으로 필요하다」는 장남 및 맏며느리가 62명중 26명(41.9%), 차남 및 둘째 며느리 이하가 48명중 11명(22.9%)로 장남 및 맏며느리가 높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필요하다」와 「앞으로 필요하다」의 합은 장남 및 맏며느리가 62명중 57명(91.9%), 차남 및 둘째 며느리 이하가 48명중 37명(77.1%)으로 장남 및

맏며느리가 높은 필요도를 나타내고 있다. (표3 참조)

또 장남, 차남이하, 맏며느리, 둘째 며느리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필요하다」는 맏며느리(78.3%), 둘째 며느리 이하(58.3%), 차남이하(52.8%), 장남(33.4%) 順이고 「앞으로 필요하다」는 장남(53.8%), 둘째며느리 이하(25%), 차남이하(22.2%), 맏며느리(22.2%)의 順이다. 그리고 「필요없다」는 차남이하(25%), 둘째 며느리이하(16.7%), 장남(12.8%)의 順이며, 맏며느리는 0%이다. (그림2 참조)

(표3) 장례의식장의 필요도

구분 \ 빈도	N	%
필요하다	57	51.8
앞으로 필요하다	37	33.6
필요없다	16	14.6
계	110	100

(표4) 장례의식장이 필요하지 않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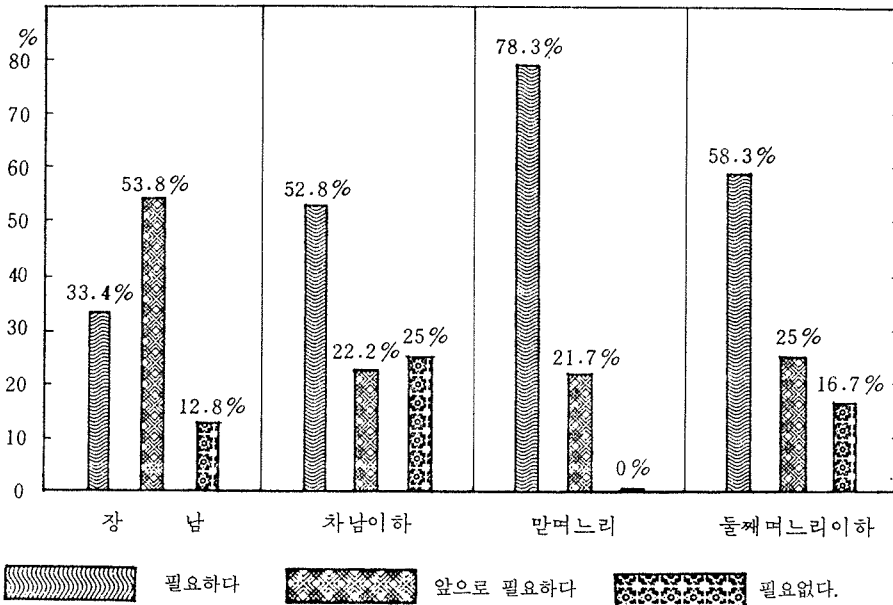
구분 \ 빈도	N	%
전통적인 사회관습 때문에	8	50
왠지 불효하는 것 같아서	8	50
현재 장례절차가 좋아서	0	0
기타 이유	0	0
계	16	100

(표5) (媿)父母喪 經驗有無에 따른 필요도

구분 \ 빈도	장례유경험자		장례무경험자	
	N	%	N	%
필요하다	33	53.2	24	50
앞으로 필요하다	22	35.5	15	31.3
필요없다	7	11.3	9	18.7
계	62	100	48	100

(표6) 형제 순위에 따른 필요도

형제순위 \ 빈도	전 체				남자일 경우				여자일 경우			
	장 남 (맏며느리)		차 남 (둘째며느리 이하)		장 남		차남이하		맏며느리		둘째며느리 이하	
	N	%	N	%	N	%	N	%	N	%	N	%
필요하다	31	50	26	54.2	13	33.4	19	52.8	18	78.3	7	78.3
앞으로 필요하다	26	41.9	11	22.9	21	53.8	8	22.2	5	21.7	3	25
필요없다	5	8.1	11	22.9	5	12.8	9	25	0	0	2	16.7
계	62	100	48	100	39	100	36	100	23	100	12	100



(그림 2) 형제순위에 따른 필요도

● 주거형태에 따른 필요도 분석
 거주형태에 따른 필요도를 분석하여 보면,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필요하다」와 「앞으로 필요하다」의 계가 응답자 72명 중 63명(87.5%)이고,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응답자 38명 중 31명(81.6%)이다. 따라서 주거형태에 따른 필요도는 큰 차이가 없었다. (표 7 참조)

● 宗教別 必要度 분석
 종교에 따른 필요도를 분석하면, 「필요하다」와 「앞으로 필요하다」의 계가 기독교의 경우 응답자 28명 중 26명(92.8%)으로 가장 높고, 불교는 16명 중 14명(87.5%), 無宗教는 54명 중 45명(83.3%), 천주교는 12명 중 9명(75%)의 順이다. (표 8 참조)

● 年齡別 必要度 분석
 연령별 필요도를 분석하면 「필요하다」와 「앞으로 필요하다」의 계가 30대 이하에서는 응답자 65명 중 54명(83%)이고, 40대 이상에서는 응답자 46명 중 40명(87%)이다. (표 9 참조)

2. 사망자 통계 및 해당정책방향

● 死亡者 통계

인구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추계한 85년도 우리나라의 사망자수는 25만6천명, 1천명당 6.2명이었다. 그리고 제 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인구 부문)의 장기 인구

전망에 따르면 앞으로 수년간은 의학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사망자가 조금씩 줄어 1990년경에 25만1천명 수준에 이르렀다가 노령인구의 증가와 함께 다시 증가하기 시작, 1995년 26만5천명, 2000년에는 29만5천명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2023년에는 사망자수가 무려 54만1천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망율도 85년의 0.62%에서 0.58%까지 떨어졌다가 2000년에 0.62%, 2023년에 1.03%로 증가하게 될 전망이다. (표 10 참조)
 한편 사망신고를 토대로 작성한 84년도 남녀별 사망자수를 보면 남자 13만2천4백17명, 여자 9만4천9백93명으로 남자가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별로는 1980년을 기점으로 60대 후반(65~69세)층과 70대 전반(70~74세)층의 순위가 바뀌어, 1984년도에는 70대 전반층의 사망자수가 2만4천7백33명으로

(표 7) 주거형태에 따른 필요도

구분	주거형태		단독주택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필요하다	38	52.8	19	50
앞으로 필요하다	25	34.7	12	31.6
필요없다	9	12.5	7	18.4
계	72	100	38	100

(표 8) 종교별 필요도

구분	종교별		기독교		천주교		불교		무종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필요하다	16	57.1	7	58.3	8	50	26	48.1		
앞으로 필요하다	10	35.7	2	16.7	6	37.5	19	35.2		
필요없다	2	7.1	3	25	2	12.5	9	16.7		
계	28	100	12	100	16	100	54	100		

(표 9) 연령별 필요도

구분	연령별		40대 이상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필요하다	33	50.7	25	54.3
앞으로 필요하다	21	32.3	15	32.7
필요없다	11	17.0	6	13.0
계	65	100	46	100

전체(22만7천4백10명)의 10.9%를 차지했으며, 0~4세, 유아기의 사망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표 10, 그림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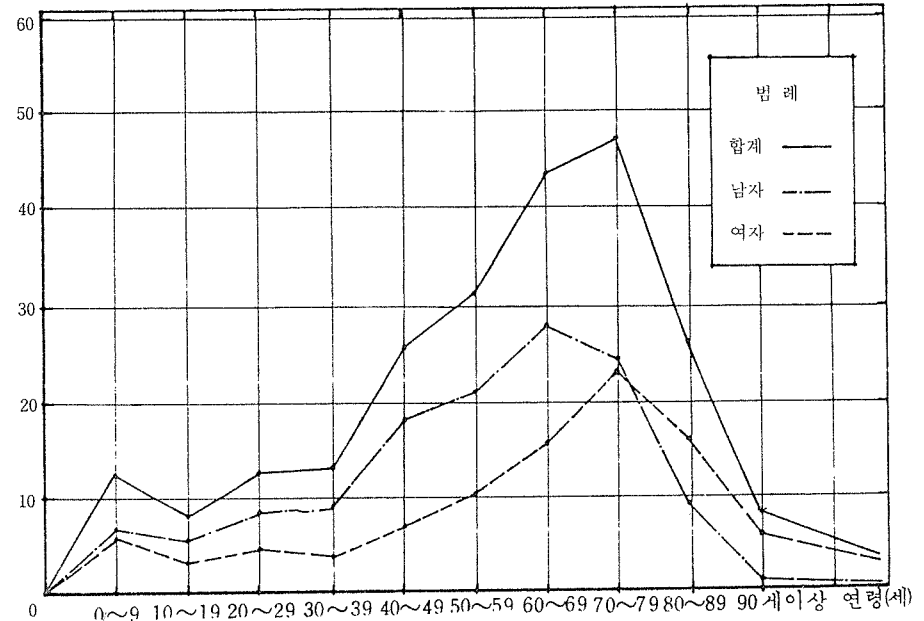
한편 월별 사망자 분포를 살펴보면 대체로 동절기 사망율이 높다. 또한 주민등록상의 집계로 서울시에서 사망한 사망자 수는 <표 12>와 같다.

● 해당정책방향

保社部는 지난 61년 「埋葬 및 墓地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분묘의 보유면적, 매장, 화장, 화장장 등의 시설과 관리를 명문화하였다. 또 68년, 73년, 81년 3차례에 걸쳐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전면 개정하였다. 이 법률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86년 4월 「묘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는데 그 내용은 「국토의 잠식을 막는 묘지 면적이 축소와 묘지의 집단 공원화」와 함께 장례 의식장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병원에서 사망했을 때 병원 영안실에서 장례를 치루므로써 입원환자에게 불안감을 주는 등 정신건강을 해치고, 위생환경과 인근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막기 위함이다.

이를 위하여 설치장소는 주거지역과는 떨어진 도시근교의 교통이 편리한 그린벨트(Green belt)를 이용한다는 내용이나 시행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사망자수(천명)



(그림 3) '84년도 사망자 227,400명에 대한 연령별 사망 현황

<표 10> 인구증가 및 사망률 예측

(단위: 천명)

년 도	총인구	사망수	사망율 (%)
1985	41,056	256	0.62
1986	41,569	254	0.61
1987	42,082	252	0.60
1988	42,593	252	0.59
1989	43,099	249	0.58
1990	43,601	251	0.58
1991	44,094	252	0.57
1995	45,962	265	0.58
2000	48,017	296	0.62
2023	52,574	541	1.03

자료: 제 6 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인구부문계획, 86. 3

<표 12> 년도별 서울시 사망자수

년 도	사 망 자 수
1978	23,759명
1979	24,073명
1980	29,205명
1981	30,632명
1982	29,259명
1983	32,743명
1984	33,605명

자료: 서울시, 통계연보, 1985.

□ 주

-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始祖 東明王 第十四年: 王母柳花, 薨於東扶餘, 其王金以太后禮葬之, 遂立神廟: 三國史記 琉璃王 28年條: 「以太子禮, 葬於東原, 立廟」
- 三國史記 新羅本紀 南鮮王: 「三年 春正月, 立始祖廟」
- 隋書卷81 百濟條: 「每以四仲之月, 王祭天及五帝之神, 立其始祖仇台廟於國城, 歲四祠之」
- 崔基福, 儒敎의 喪禮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成均館大學校大學院 1979, p. 128
- 栗谷全書 捨遺 卷4 死生鬼神第: 「生于是理 死于是理, 未生之前, 只有是理而已. 既死之後 亦有是理而已」
- 孟子, 告子 下 3: 「親親, 仁也」
- 孝經 喪親章
- 조용목, 예식서, 서울書籍, 1985, p. 125

<표 11> 84년도 연령별 사망현황

구 분	연 령							
	0~4	5~9	10~14	15~19	20~24	25~29	30~34	
전 국	8,584	3,910	2,753	5,259	6,200	6,299	5,725	
남	4,556	2,086	1,623	3,419	3,978	4,254	3,912	
여	4,028	1,824	1,130	1,840	2,222	2,045	1,813	

구 분	연 령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69	
전 국	6,930	11,298	14,250	15,055	16,617	20,858	22,591	
남	4,882	8,192	10,315	10,290	11,081	13,816	14,060	
여	2,048	3,096	3,935	4,765	5,536	7,042	8,531	

구 분	연 령							총 계
	70~74	75~79	80~84	85~89	90~94	95이상		
전 국	24,733	22,342	16,335	10,149	4,670	2,861	227,410	
남	13,638	10,629	6,391	3,370	1,238	689	132,417	
여	11,095	11,715	9,944	6,779	3,432	2,172	94,993	

자료: 경제기획원 인구 동태 통계, 1985